



멀리, 깊어가는 가을 풍경과 임진강이 한눈에 담기는 최병훈의 작업실. 그의 수많은 '태초' 시리즈의 원형이 탄생된 사색의 공간이다.



우아하고 간결한 선과 둥근 돌의 아름다운 조우, 'After Image 08-282'.

예술가가 된 디자이너

그의 확고한 믿음이 없었더라면, 한국인의 가구가 비트라 디자인 뮤지엄에 영구 소장되는 일은 없었을 것이다. '왜 안 되느냐'는 반문, 우리 미감에 대한 확신으로 아트 퍼니처의 선구자 최병훈은 여기까지 왔다.

최병훈은 가구 작업을 해나가고 있는 이 시대의 디자이너들에게 위대한 스승이다. 홍대 목조형가구학과 교수라는 타이틀은 차지하고, 그가 이룬 성취는 대단한 것이다. 40년 전 '응용미술'이라는 낯선 분야에 투신했던 그는 '가구도 예술일 수 있다'는 믿음으로 평생을 달려왔고, 2008년, 그의 작품 '태초의 잔상 05-022' '태초의 잔상 07-244'는 비트라 디자인 뮤지엄에 영구 소장작으로 입성했다. 그의 의자가 찰스 레이 임스의 '라운드 체어', 베르너 뫼튼의 '뫼튼 체어' 같은 현대의 의자들과 함께 놓인다는 사실은, 디자인에 관한 한 여전히 열등의식을 품고 있는 우리에게 전율에 가까운 놀라움을 안긴 사건이었다. 돌과 나무로 연출해낸 선(善)의 경지, 최병훈의 그 온화한 의자에 비트라 디자인 뮤지엄 관장 알렉산더 폰 페게작은 '거대한 평온함'이 우러난다는 찬사를 바쳤을 정도다.

하지만 그의 작품은 유난히 대중들과는 불화했다. 덕수궁에 설치된 그의 벤치 '자리'(2008)엔 특하면 대자보가 나붙었고, 그 차갑고 딱딱한 돌 의자를 보고, 과연 저것이 사용 가능한 물건이냐는 비아냥도 쏟아졌다. 돌과 나무를 균형감 있게 합일시킨 그 형태는 쉽게 범접할 수 없는 어떤 '경지'에 가까웠다. "항상 저는 '왜 안 되느냐'라는 물음을 가지고 삽니다. 영원불변하는 절대적인 가치는 없지요, 저는 모든 것은 인간이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봅니다. 'Video Art'라는 용어가 원래 있었던가요, 비디오 아트가 20세기를 풍미했던 것처럼, 아트 퍼니처라는 개념도 충분히 성립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의 말을 들으니 구태여 '당신의 작품은 가구인가 예술인가'를 물을 필요도 없었다. 그의 작품은 가구였고, 또 그 가구는 예술 작품으로서 부족함 없는 품위와 독창성을 지니고 있었다. 자코메티나 이사무 노구치의 가구를 보고 장르를 따지지 않는 것처럼, 그저 우리는 그의 의자를, 그의 작품을 조용히 바라보고 느끼면 되는 것이다. 그는 그렇게 '아트 퍼니처'라는 신조어를 국내에 뿌리내렸다. 목공예라는 장르 외에, 딱히 가구 디자인에 대한 교육이랄 게 없던 시절이었으니 그 단어가 몰고 온 파장은 대단했다. "미술을 시작한 지 20년 만에 국전에 입상하고, 특전으로 핀란드 헬싱키 디자인 대학에서 연구할 기회가 생겼습니다. 그곳에서 가구 디자인 교육의 시스템이 어



떤 것인가를 배웠지요. 그렇게 다양한 문화를 보면서, 내 전공에서도 새로운 세계를 열어야 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리곤 한국으로 돌아와 홍대에서 ‘Art Furniture’라는 과목을 개설했습니다. 그게 1990년대의 일이에요. 그 당시에는 그게 과목이 될 수 있느냐, 목공예를 다 버려 놓는다는 일부의 염려가 있었지요. 하지만 개의치 않았어요. 충분히 자신이 있었습니다.”

강단에 서는 한편, 그의 작업은 계속 진화했다. 한국에서도 크고 작은 개인전을 계속했지만, 그를 가장 먼저 알아본 것은 장 프루베나 론 아라드 같은 작가의 작품을 선보이는 파리 최고의 디자인 갤러리 ‘다운타운’이었다. 장식 예술의 천국 프랑스에서 동양의 한 무명 작가에게 보낸, 무모하리만치 순정한 러브콜! “돌이켜보면, 96년 첫 파리 전시를 할 때 굉장히 걱정이 많았습니다. 아르누보, 아르데코 같은 역사를 갖고 있는 곳에 가서 도대체 내가 무엇으로 승부할 것인가. 그게 가능하거나 할까 싶었죠. 처음에는 시장을 잘 몰라서 두 가지 타임을 준비해 갔습니다. 장식적인 것과 미니멀한 것. 그들이 반응하는 것은 단순한 쪽이었죠. 역시나 그들은 자신들에게 없는 걸 저에게서 찾았습니다. 동시다발적으로 많은 평가를 얻었는데, 공통점은 하나였습니다. ‘동양화 같다’는 것. 내 작품이 이곳에서 어떤 느낌일까 궁금해서, 갤러리 타운인 센 거리(Rue de Seine)의 온갖 갤러리를 다 돌아본 뒤 내 작품이 진열된 갤러리에 들어갔죠. 그리고 내 작품을 본 순간 느꼈습니다. 공기가 다르다는 걸. 내 캐릭터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사건이었죠.”

돌과 나무가 수더분하게 만나고, 가공되지 않은 나무 사이로 흑단이 기교 없이 가로지르는 그 광경에 사람들은 열광했다. 돌이나 나무처럼 자연 소재를 멋 부리지 않고 그저 무심히 놓을 줄 아는 태도는, 한국적 정서가 내재되지 않고는 흉내조차 낼 수 없는 경지였다.

그렇다면, 태초의 바람, 태초의 소리, 태초의 잔상... ‘태초’라는 이름 아래 가치를 더하는 그 작품 안에 고고히 흐르는 그 서늘한 기운은 무엇일까. “자연의 아름다움은 태초에 생성된 것이지요. 억만 겁의 세월을 거쳐오면서도 변치 않는 것, 가령 내가 사용하는 자연석 같은 것들이죠. 그 시대의 메시지를 흡입하고 싶다는 욕망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의 나와 역겹의 세월을 머금은 형상이 지금, 이 순간 만나는 거지요.”

그렇게 태초의 자연이 낳은 물질에 무한한 여백을 그려 넣은 그의 작품은 많은 사람들에게 한국의 ‘미니멀리즘’을 깊게 각인시켰다. 하지만 그의 작품이 애초에 이렇게 간결한 형태를 띠고 있었냐 하면, 그건 아니다. 작업실은 그의 지나온 실험을 목격할 수 있는 유일한 장소였다. 작업실 한쪽에 놓인 초기 작품인 거울



은 살바도르 달리의 홀러내리는 시계처럼 흐물흐물한 곡선을 띠고 있었고, 나무로 만든 높은 CD장에는 심지어 컬러 페인팅이 입혀져 있기도 했다. 한국의 미학을 담은 미니멀리스트에게도 이렇게 과거(!)는 존재했다. “나무에다가 아크릴 물감으로 페인팅을 하는 실험도 했었지요. 93년도에 만든 저 의자는 당시로서는 새로운 알루미늄 소재를 벤딕한 것이기도 하고요. 콤팩트디스크가 처음 나왔을 때는 CD장도 만들었습니다. 지금은 그 작품들을 거의 갖고 있지 않은데, 돌이켜보면 그게 참 안타까워요.”

어느 날 돌연, 비트라 디자인 뮤지엄과 디자인 마이애미가 존재감도 역사도 없는 동양의 디자이너를 건져 올린 건 아니었다. 동료도 선배도 없이 치열했던 그의 분투를 목도하노라니 불현듯 애잔한 마음이 밀려들었다. 갑자기 수면 위로 떠오른 듯 보이는 ‘디자인 코리아’의 맹위는 이렇게 상당 부분, 그에게 빚지고 있었다. “이제 또 다른 세계를 가야죠. 그래서 나는 항상 시작이라는 생각을 해요. 나이 들에 대한 낙약함을 경계하고, 또 어디서 에너지를 부여받을까 하는 고민을 늘 하며 살지요.”

따지고 보면, 그는 가구 디자인 교육이 전무했던 우리나라에서 늘 모든 것을 처음 경험했고, 또 가장 먼저 새로운 디자인을 내놓아야 한다는 강박 속에 살았다. “보여주지 못한다면 허구일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새로운 문화를 제시할 수 있어야만 강단에 설 수 있는 명분이 생기는 거죠. 실현도 못하면서 막연한 얘기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는 아직도 같습다. 작업실 벽면에 나란히 붙은 세계지도와 국내 지도, 그 안의 수많은 동그라미와 지령이 같은 곡선들이 대신 말해주고 있다. 따지고 보면, 그는 평생 떠남으로써 자신의 진면목과 대면할 수 있었다. 지구 한 바퀴를 돌아나오며 만난 성당과 집들, 그리고 수많은 토산품과 돌덩어리들, 동굴과 유적은 자극인 한편, 진짜 ‘자신의 이야기’로 돌아와야만 하는 어떤 ‘발미’ 같은 것이기도 했다. “어린 시절 저 산 너머에는 어떤 세상이 있을지 궁금했어요. 그래서 평생 끊임없이 여행을 했습니다. 세네갈에서 만난 니그로 미술, 안데스 산맥, 잉카 문명의 충격, 그 수많은 여행이 성장의 큰 원동력이 됐죠.”

예술가의 예민함보다는 선생의 인자함이 만면에 가득한 그가 그 수많은 여정을 추억하며 나직이 이야기했다. ‘형태의 단순함이 반드시 경험의 단순함을 뜻하지 않는다’는 로버트 모리스의 말은 맞았다. 아니, 오히려 그 반대다. ‘디자인’이라는 단어조차 생소했던 그 시절을 지나, 수많은 가구 디자이너의 전범이 된 그는 아마도 그렇게 태어났으며, 또 그렇게 진화하고 있다. **editor** 박지혜 **photographer** 이승무



1 1999년도에 선보였던 작품 ‘태초의 잔상 9978’. 단풍나무를 유연하고 둥글게 다듬어 만든 철학적인 벤치다. 2 최근 선보이는 작업의 원형이 되었던 작업 ‘태초의 잔상 9637’(1996). 그의 오랜 지기이기도 한 사진가 배병우가 촬영했다. 3 그의 대표작으로 손꼽히는 작품 ‘태초의 잔상 08-263’. 돌의 무게가 의자를 지탱할 수 있도록 디자인해 실용성을 살렸다. ‘아트 퍼니처’라는 단어의 뜻을 실감할 수 있는 아름다운 곡선이 발군이다. 4 돌과 나무의 조형적 만남을 엿볼 수 있는 ‘태초의 잔상’ 시리즈. ‘After Image 9622’, 1995년 작품이다. 5 조현화랑 부산에서 12월 25일까지 열리는 개인전에서 선보이는 작품. ‘After Image 010-345’. 월넛에 옷칠 마감을 하는 실험을 했던 작업이다. 6 1993년 작품인 ‘태초의 소리 9301(Voice from The Beginning of The World 9301)’. 마치 한 편의 조각 작품을 연상케 하는 조형적인 벤치다.

“자연의 아름다움은 태초에 생성된 것이지요. 억만 겁의 세월을 거쳐오면서도 변치 않는 것, 가령 내가 사용하는 자연석 같은 것들이죠. 그 시대의 메시지를 흡입하고 싶다는 욕망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의 나와 역겹의 세월을 머금은 형상이 지금, 이 순간 만나는 거지요.”

